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4-14호 / 6월 7일

중국경제와 대내외적 불균형

1. 중국경제의 불균형 문제¹⁾

□ 중국에서 지역간 격차와 도농간 발전격차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

- 다만 균형성장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 균형성장이 강조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의 균형성장은 현실경제에서는 불가능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 (coordination)’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야 할 것임.

□ 지역간 격차 문제

- 세계사적 경험 중에서 중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발전모형의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으나, 다만 20세기 상반기 미국의 경험은 비교적 참고할 가치가 있음.
- 당시 미국에서는 빈곤한 남부지역에서 부유한 북부지역으로 노동력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자본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음.

- 이러한 노동력 및 자본의 대규모 이동은 기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 따라서 당시 미국연방정부가 실행한 남부지역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은 이같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데 부차적인 기여를 하였던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중국의 경우는 부유한 연안지역에서 내륙 빈곤지역으로 대규모 자본이동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험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내륙지역 투자는 시장원리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국유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경험과 다른 것임.
- 내륙지역의 인프라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부분적인 요인이 될 것이지만, 내륙지역 투자환경이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됨. 투자유치가 부진한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의 경험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의 걸림돌은 대동소이함.

□ 도농간 격차 문제

- 도농간의 격차는 지역간 격차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점이 남아 있음.
- 최근 농촌지역 감세 추진, 농촌지역의 인적자본, 인프라의 개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농업부문이 이미 生産可能曲線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보기 어려움.
- 소위 南水北調사업 역시 완공이후에는 주로 도시지역 및 공업용수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

- 또한 중국은 일본, 유럽 등 선진국가처럼 농업부문에 대해 (비효율적이지만) 보조금 지원을 제공할 형편이 되지 못함.
- 농업부문의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농업인구를 이동하는 것이며, 비농업 직종을 농촌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하는 것은 아님. 즉 농촌 인구를 가급적 농촌지역에 묶으면서 도농간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궁극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에 성공한 대부분의 경우, 농업인구의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역시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하게 진행되어 왔음.
- 한국과 일본의 경우 현재 중국과 비슷한 소득수준에서 대략 20년에 걸쳐 농촌인구가 50%에서 20% 미만으로 감소하였는데 중국의 경우에도 향후 20여년에 걸쳐서 비슷한 수준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임.
-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도시지역에서 취업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인구를 급속하게 도시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중국의 경우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지역 취업창출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투자를 확충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호구제도의 변경은 올바른 정책방향이기는 하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추구한다면 격차해소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정책대안은 되지 못할 것임.

2. 세계경제 불균형과 중국²⁾

-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향후에는 중국과 세계경제간의 상호 의존작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 지난 5년간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이

에 따라 중국은 세계경제의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의 불균형

-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의 국내저축률은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에는 1% 이하로 추락
 -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최대(2003년에 GDP의 약 5% 육박)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이 엄청난 규모의 해외저축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
 -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중국을 위시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를 의미하며, 향후 이러한 불균형의 규모로 보아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가격인 대미환율 및 실질금리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의 금리는 대단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연준위가 인위적으로 화폐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며, 또한 對美통상 흑자국가들이 미국 재무부의 장기채정증권(Treasuries)의 구매를 통하여 달러를 리사이클링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임. 그러나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는 장기간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임.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며 향후 글로벌한 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불균형의 요인

- 최근 이같은 세계경제의 불균형 상황과 관련하여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불과 1년전만 해도 전세계적인 불경기하에서 중국경제의 급성장은 찬사의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에 대해 중국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형편임.

- 과거 미 달러화에 대해 유로화 및 엔화의 평가절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평가절상 대신에 G-7은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통하여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중국은 대부분의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 또한 2003년도 중국의 흑자규모는 GDP의 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엔화 환율은 대체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중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最大赤字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낮은 국내저축률,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안하면 무역적자는 당연한 것임. 또한 중국이 아니더라도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와의 무역적자가 불가피할 것임.
- 오히려 저가의 중국제품은 미국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며, 중국은 최근 동안 장기채정증권(Treasuries) 구매를 통해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어 미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2003년 11월 기준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장기채권 보유국(9.6% 보유)임.

□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

- 앞서 언급한 미국의 소비증가 위주의 성장 이외에 최근 세계경제는 중국의 신용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이라는 양대 성장원천에 의지하여 왔음.
- 2003년 일년 동안 기준을 중국은 일본의 대외수출 증가분의 32%, 한국

은 36%, 대만 68%, 독일 28%, 미국 2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중국과 세계경제와의 상호의존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중국의 감속 성장은 다른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세계현물시장 역시 중국경제의 성장 속도여하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2003년 중국의 급성장에 의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구리 및 니켈 가격은 각각 50%, 125% 상승하였음. 또한 최근에는 철강,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하는 추세임. Morgan Stanley의 분석에 의하면 2003년 니켈 소비량 증가분의 44%를 중국이 소비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원자재의 약 20%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경제속의 중국의 역할

- 중국의 신용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은 과열논쟁을 유발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천의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다른 국가, 특히 주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중국의 신용팽창에 의한 경기순환 현상과정에서 경착륙의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선제적인(pre-emptive) 거시경제정책을 적시에 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은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시정책 도구로서 여타 시장경제국가에서 채용하는 통화가치를 조정하는 정책수단 보다는 직접 신용배분을 조정하는 수단이 더 효과적일 것임.

- 이와 같이 지난 20여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불가피하게 중국과 세계경제와의 상호의존성 증대되어 왔음.

○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중국에게 중대한 도전이며 과제인 것은 분명함. 마찬가지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말미암아 미국, 일본 및 주변 동아시아 국가는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과는 힘겨운 경쟁이 될 것임. (***)

- 1) 2004 중국발전논단에서 하버드 대학 Dwight Perkins 교수의 발표내용을 발췌한 것임. 중국발전논단은 매년 양회 종료 직후 개최되고 있는데, 중국 중앙정부의 부장급 관원이 정부정책을 발표하고 초청된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에 대해 논평하는 포맷으로 진행되고 있음. 2004년 논단에서는 Dwight Perkins (Harvard Univ), Lawrence Lau(Stanford Univ), Partha Dasgupta (Cambridge Univ), Stephen Roach(Morgan Stanley) 등이 참가하였고, 한국에서는 안충영 KIEP 원장이 참가하였음.
- 2) 2004 중국발전논단에서 Stephen Roach(Morgan Stanley)의 발표내용을 발췌한 것임.